

호남권 거점 우치동물원 '찾아가는 전문진료' 제주로 확대

5개 동물원 대상 맞춤형 검진·사육곰 진료 하반기 이동진료차량·장비 구축 2차 지원

광주 우치동물원이 호남권 거점동물원의 역할을 본격화하며 제주지역까지 전문 동물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

광주시 우치동물원은 지난 23-24일 이틀간 새별프렌즈, 제주자연생태공원, 한림공원, 고하의 정원, 스마일러펫 등 제주지역 동물원 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점동물원 설명회'와 전문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의 역할과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제주지역 동물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치동물원 소속 수의사들이 현장을 찾아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종별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동물원의 건강관리 수준과 동물복지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우치동물원 진료팀은 제주지역 동물원 5곳을 방문해 조류, 초식동물, 파충류, 곰과 동물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임상 진료를 진행했다. 아울러 질병 예방 및 치료 방안에 대한 전문 의료



광주시 우치동물원 소속 수의사들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새별프렌즈, 제주자연생태공원, 한림공원, 고하의 정원, 스마일러펫 등 제주지역 동물원 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점동물원 설명회'와 전문진료를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자문도 함께 제공했다.

새별프렌즈에서는 블랙노즈양, 알파카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종별 특성에 맞춘 질병 예방 관리법을 전수했다.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는 현재 구조돼 보호

중인 사육곰 4마리에 대한 임상 진료를 진행했다. 우치동물원은 그동안 쌓아온 반달가슴곰 종보전 사업과 노령동물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체별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사육곰 사육종식 정책과 연계해 보호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치동물원은 현재 사육곰 4마리를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2마리를 입식할 예

정이다. 동물원은 반달가슴곰 종보전과 노령동물 진료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생추어리(Sanctuary·야생동물 보호구역)형' 보호시설 확대와 전문 보호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우치동물원은 순천·여수·담양·해남 등 전남지역 동물원을 대상으로 현장 진료와 의료 자문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이번 제주지역 진료를 기점으로 전문 동물의료서비스를 호남권 전역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우치동물원은 동물 이송 및 이동진료 차량, 전문 진료장비 등을 구축해 하반기에도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 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치동물원은 2025년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이후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역 25개 동물원을 총괄하며 질병관리, 긴급구조, 치료, 재활, 종 보전 및 증식사업 등 전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거점동물원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지역 동물원에 대한 전문진료와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동진료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지역 간 동물의료 격차를 줄이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 연안해역 '새우 전염병 예방' 힘 모은다

도해양수산과학원·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협약의 열어 방역관리 협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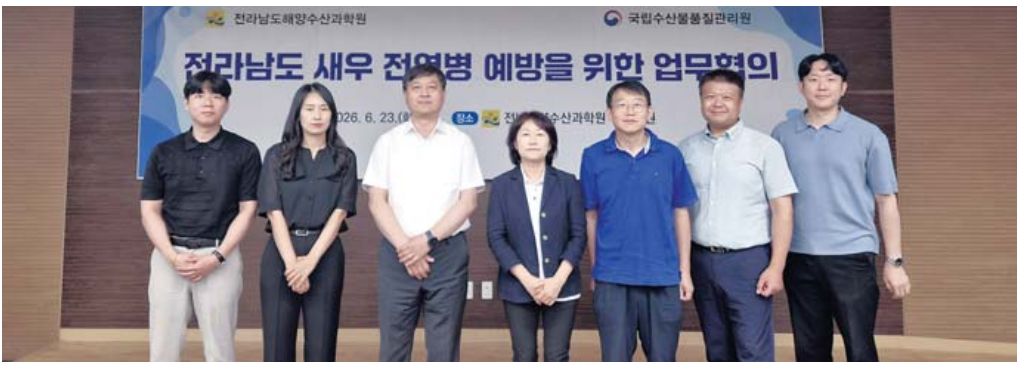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4일까지 이틀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신안 일대에서 새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의 열을 열고 방역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협약의 전파력이 강한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AHPND) 발생으로 양식 현장 피해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은 사람에게서는 영향이 없지만 새우류에 병원성이 강하고 폐사율이 높아 살처분 대상 전염병으로 관리 중이다.

업무협약의 열에서 새우 전염병 관련 주요 업무와 현안을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교류했다. 두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기술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현장 대응력을 결합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연안해역 수산생물전염병 예보 시스템'과 연계해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 병원체 검사를 위한 새우 양성 밀도가 높은 연안 해역 조사 정점을 추가 요청했다. 두 기관은 향후 조사 정점을 단계적으로 검토 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신안 도초면의 흰다리새우 양식장을 방문해 현장 현안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양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전염병 관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새우 양식산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염병 사전 예측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력으로 질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개발한 연안해역 수산생물전염병 예보 시스템이 지방정부와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우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오늘까지 19개 종목 열전

전남도는 25일 "우수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목포·영암 등 6개 경기장에서 '2026년 전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전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남지부가 주관한 대회에는 173명이 참가해 1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개회식은 전남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으며 김산 무안군수와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25일에는 종목별 경기가 진행되고, 28일에는 시상식과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입상자는 최대 50만원의 상금을 받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목별 금상 수상자는 오는 9월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을 얻는다. /김재정 기자

市,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지침 마련

광주시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이 충전시설 위치 안내 부족, 접근성 미흡, 안전관리

부재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지침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 수요 분석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변은진 기자

묘 이감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감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감 전문 ☎ 문의) 062-464-3466